



수확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아카시아꽃 만개

기대한 만큼 아카시아꿀 채밀량은 많지 않아...

양봉인들에게 가장 바쁘고 동시에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는 달인 5월이 찾아오면서 오랜만에 우리 양봉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5월 들어 기온이 상승하고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아카시아꽃이 만발한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까시나무 황화현상이 수그러들어 아카시아꽃이 활짝 피었다. 이에 덩달아 양봉인들도 금년 아카시아꿀 채밀에 상당히 기대가 부풀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좋은 기후조건과 채밀환경에 비해 기대한 것만큼 채밀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잦은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 채밀량이 떨어지고 있어 농가들은 더욱 걱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꿀채밀에 들어간 남부지방에서는 때이른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로 여기저기서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에는 넉넉한 풍작으로 지난 3년간 아카시아꿀 흉작으로 인한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